

풍요와 화목의 관점에서 본 <흥부전>의 현재적 가치*

이해진**

- I. 문제 제기
- II. 풍요의 화신 놀부, 화목의 화신 흥부
- III. 놀부 패망 후 배제와 포용의 두 가지 결말
- IV. 한국 사회의 지향점과 관련해 갖는 의미
- 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풍요와 화목을 키워드로 하여 <흥부전>의 두 주인공 흥부, 놀부의 인물 형상과 이들이 빚어내는 결말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향점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논함으로써 <흥부전>의 현재적 가치를 발굴해 보고자 했다.

이 글에서 논의한바, <흥부전>은 한 개인의 삶에서 물질적 풍요의 달성에만 골몰하여 관계적 화목의 가치를 등한시한 사례로 놀부를, 화목에 몰두하다가 풍요의 가치에는 다소 소홀했던 사례로 흥부를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였다. 또한, 개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있어서 <흥부전>은 놀부 같은 인간형을 배제하는 결말과 포용하는 결말의 두 계통으로 분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중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화목한 사회로의 지향을 내포한 것은 포용의 결말 쪽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23년 2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국문학회 2023년 동계학술대회("국문학 자료의 발견과 재발견")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정 토론을 해주신 명지대 국문과 최어진 교수님, 청중 논평을 해주신 교수님들, 논문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강사

그리하여 이 글은 이러한 포용의 결말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새로운 울림을 줄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부자가 된 흥부가 놀부를 구제하고, 패망한 놀부에게 개과의 기회가 주어지는 결말은 능력주의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사회 갈등과 불화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화목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래에 인기를 끈 한 드라마 속 현대판 <흥부전> 에피소드와 그 바탕이 된 실화 속 주인공, 그리고 인간 본성의 선함을 믿었던 전통적 사유 등을 <흥부전>과 겹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인은 본디 물질적 풍요 못지 않게 관계적 화목에 방점을 두고 있었음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글의 논의가 <흥부전>이 비단 조선 후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를 성찰하는 데에도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나아가 고전문학의 현재적 가치를 논하는 데에 일조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핵심어: <흥부전>, 인물 형상화, 결말, 물질적 풍요, 관계적 화목, 물질주의, 능력주의, 고전문학, 현재적 가치

1. 문제 제기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문학 그리고 그 안에서 고전문학의 위상에 대한 전공 안팎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고전문학이 오늘날 왜 필요한가를 증명해내고 설득해내지 못하면 이제 그와 관련된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의 존립 또한 보장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¹⁾ 그런 점에서 오늘날 고전문학의 존재 가치와 교육 목적에

1) 이에 따라 대응책을 모색하는 논의들도 제출되어 왔다. 예컨대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할 경우 '고(古)'나 '전(典)'보다 '문학'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 스스로 읽는 재미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설사 오독이 발생할지라도 학생의 현재적 관심사나 자유로운 감상을 반영한 고전문학 독서가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바로 그러한 위기와 타개책에 대한 고민의 소산이라고 생각된다.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61~68면 및 75면;

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은 고전문학이 보전되어야 할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이라는 당위적 구호가 아닌 듯하다. 그보다는 지금 여기 우리의 삶, 현실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이 모종의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고전문학의 현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환기할 필요가 있다.

고전문학의 현재적 가치를 논할 때 우리는 일단 그 전승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랜 기간 전승되어 현재까지 그 내용이 잘 알려진 작품들의 경우, 무엇이 그렇게 오랫동안 작품을 전해오게 한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했을까 하는 점을 천착해 보는 것이야말로 고전문학의 현재적 가치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근원적인 힘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테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혹은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삶과 죽음, 선과 악, 사랑과 이별, 빈부, 권력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 고전문학 작품들이 그러하다.

소설로도 읽히고 판소리로도 불리우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홍부전>은 그동안 선악, 빈부, 계층, 우애 등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서 학계의 논의가 무수히 축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줄거리를 훤히 잘 알고 있는 고전문학 텍스트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는 막상 단순한 전래동화로 취급되거나 교훈적 이야기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홍부전>이 오늘날 우리 자신 그리고 사회와 관련해 어떤 유익한 생각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인지가 정당하고도 충분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²⁾

윤정안, 『고전소설을 활용한 감성교육 - 다양한 '사랑'이라는 감정의 간접 경험』, 『한국고전연구』 5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97면 참조.

2) 이상일은 <홍부전>의 윤리적 가치와 의미가 학습자들에게 피상적으로만 학습되는 현 교육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런데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정작 큰 문제는 <홍부전>의 윤리적 주제를 단순한 개념적 지식이나 도덕적 강령 정도로 취급하는 경직된 분위기에 있다. (...중략...) ‘권선징악’ 등의 윤리적 주제가 작품 속에서 사건, 인물, 표현 등 다양한 요소와 국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학습자 스스로 탐색하고, 나아가 이를 자신의 일상으로 전유하여 성찰적으로 사유하는 활동이 병행되지 않는 한, <홍부전>에 나타난 윤리적 가치와 의미는 학습자들에게 단순한 실체적 지식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상일, 『놀부 징벌의 양상과 그 의미 -권선징악 주제 교육의 측면에서-』, 『선청어문』 5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22, 204면.

이에 이 글에서는 두 주인공 홍부, 놀부의 인물 형상과 이들이 빚어내는 작품의 결말을 중심으로 <홍부전>이 오늘날 한국 사회와 관련해 어떤 성찰의 지점을 제공하는지 논함으로써, 고전문학의 현재적 가치를 <홍부전>을 한 사례로 하여 발굴해 보고자 한다. <홍부전> 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선악, 빈부, 계층, 우애 등은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문제들인데, 이 글에서는 이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풍요와 화목을 키워드로 삼아 <홍부전>이 우리에게 어떤 시의성 있는 의미를 갖는가를 고찰해 볼 예정이다.

기실 놀부는 그 무도함과 탐욕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면함과 치산 능력에 있어서 만큼은 일부 긍정적인 묘사가 이미 텍스트 내에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또 홍부는 분명 선량하고 이타적인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무능과 부족한 실리 감각을 부정하기 어려운 면모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연 놀부는 악인이기만 하고 홍부는 선인이기만 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실제로 <홍부전> 연구사에 있어서 ‘홍부 놀부의 인물평가 논쟁’³⁾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 현 시점에서 홍부와 놀부라는 두 인물 형상, 그리고 <홍부전>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2021년 말, 미국 퓨리서치센터에서는 전세계 주요 17개국 성인 18,850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에 대해 열린 질문 형태로 답하도록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한 나라가 한국이었다. 14개국에서 ‘가족’이 1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스페인어는 ‘건강’, 대만은 ‘사회’를 꼽았다고 한다), 한국만 유독 물질적 풍요가 제일 높게 나왔던 만큼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고, 이에 대한 언론과 SNS의 관심도 잇따랐다.⁴⁾

3) 이상택, 『홍부 놀부의 인물평가』,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540~549면. 이 논문에서는 홍부를 부정적으로, 놀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자로 조동일(1969)과 서대석(1975)을, 반대로 홍부를 긍정적으로, 놀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논자로 임형택(1960), 이상택(1973), 이문규(1981)를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홍부와 놀부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연구자가 이익사회적 능률주의 편에 자리하는가 아니면 공동사회적 情誼主義 편에 자리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인 듯도 싶다”고 하였다. 여기 소개된 논자들 중 조동일, 서대석, 임형택, 이문규의 논문은 인권환 편저, 『홍부전 연구』, 집문당, 1991에 계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삶을 의미있게 하는 요소’로서 ‘물질적 풍요’가 증시되는 사정을 감안하자면,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부를 좇았던 놀부를 무작정 비난만 할 수도 없고, 또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던 홍부를 그저 심성이 착하다는 이유로 옹호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놀부야말로 오늘날 한국인들의 진짜 욕망을 솔직하게 대변하는 인물이 아닐까? 반대로, <홍부전>의 향유층이 작품 제목에서 내세운 홍부는 사실상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효성을 상실한 인물인 것일까?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대면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끔 만든다. 그리하여 홍부와 놀부의 인물 형상, 그리고 이들이 빚어내는 작품 결말에 천착해보는 것은 <홍부전>이 우리에게 어떤 통찰의 지점을 제공하는가 하는, 모종의 실용성 있는 가치를 탐색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본다.

사회심리학자 김태형은 근래에 한 사회비평서에서 인류의 이상 사회는 ‘풍요’와 ‘화목’이 동시에 달성된 사회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4가지 유형의 사회(가난-불화사회, 가난-화목사회, 풍요-불화사회, 풍요-화목사회)를 구분한 바 있다.⁵⁾ 논자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는 ‘풍요-불화 사회’로서, 이는 ‘다층적 위계에 기초한 불화’와 ‘위계 내 불화’까지 더해진 심각한 불화 사회이다.⁶⁾

4) 물론, 이 설문 결과에 대해 좀 더 따져보아야 할 부분도 있다. 예컨대 다른 나라들에서도 ‘물질적 풍요’는 1위만 아닐 뿐 상위권 항목에 속했다는 점, 한국의 경우 물질적 풍요가 답변의 19%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퍼센티지만 보면 17개국 중간값에 해당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한국은 복수 응답보다 단일 응답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 단일 응답이 많은 가운데서도 1위로 물질적 풍요가 꼽혔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할 부분이다. 이웃국가 일본도 단일 응답 비중이 높았으나 가족이 1위를 차지한 점과 대조가 된다.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한국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 1위 꼽아, 『경향신문』, 2021.11.22; 『한국인만 ‘물질적 풍요’ 중시? 조사 보고서 확인해보니...』, 『한국일보』, 2021.11.22. 참조.

5) 김태형, 『풍요중독사회』, 한겨레출판, 2020, 12~22면. 이때 ‘풍요’와 ‘화목’을 이상 사회의 두 가치축으로 본 것은 엄밀히 말해 이 저서만의 고유한 관점은 아니라고 본다. 리처드 월킨슨, 조지프 스티글리츠, 마이클 마렛 등 여러 해외 저명 학자들의 논의가 그 안에서 인용되고 있거니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같은 저작을 보더라도 무엇이 실제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와 관련해 물질적 요소 이외에 사회적·윤리적·정신적 요소가 적극 천착되고 때문이다(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535~543면). 다만 풍요와 화목을 두 축으로 하여 4가지 유형의 사회를 구분한 것은 김태형의 고유한 작업에 해당한다.

6) 김태형, 앞의 책, 23~29면 및 44면.

<홍부전>의 배경이 되는 조선 후기는 현대 한국에 비하자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회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농업 기술과 상품화폐가 발달하면서 생산력이 확대되고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던 시기로서, 풍요-불화 사회인 오늘날과 겹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놀부와 홍부 사이의 인물 대립, 그리고 놀부가 패망한 이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작품 결말에 주목해 보면 <홍부전>은 개인의 삶에서 ‘풍요’와 ‘화목’이라는 두 가치(관) 사이의 줄다리기를, 그리고 사회 및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와 ‘화목’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그리하여 이 글이 풍요와 화목을 키워드로 삼은 것은 <홍부전>의 메시지가 단지 개인의 선악 또는 빈부 문제나 가족 단위의 우애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이 글은 <홍부전>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존속과 미래를 위해 개인과 사회에 무엇이 요청되는지에 대한 상상력까지 내포하고 있는 작품임을 적극 드러내고자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먼저 <홍부전> 속 놀부와 홍부의 인물 형상을 점검하고(II장), 이어서 이들이 빚어내는 두 가지 계통의 결말을 검토한 다음(III장), 이를 종합하면서 <홍부전>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향점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는 것(IV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연구 대상 텍스트는 <홍부전>의 주요 이본인 경판 25장본 <홍부전>,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51장본 <홍보전>, 신재효본 <박타령>, <연의 각>을 중심으로 하고, 논의 과정에서 필요 시 최근에 새롭게 소개된 이본인 <홍보만보록>⁷⁾도 적극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본 논의를 통해 <홍부전>이 단지 조선

7) 김동욱·정병설, 『<홍부전>의 새 이본 <홍보만보록> 연구』, 『국어국문학』 179, 국어국문학회, 2017; 김동욱·정병설, 『<홍보만보록>을 통해 본 <홍부전>의 새 주체』,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김동욱 옮김, 『홍보만보록: 최초의 홍부전』, 문학동네, 2020. 이 선행 연구들에서는 <홍보만보록>의 필사연도를 1833년으로 추정함으로써 필사시기를 알 수 있는 현전 <홍부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파악하였다. 더불어 <홍보만보록>은 창본의 성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소설 <홍부전>과 판소리 <홍보가>의 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이본임을 논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건대, <심청전>의 경우에도 경판본 중 한남본(경판 24장본), 대영A본(경판 24장본), 대영B본(경판 26장본)은 판소리체 <심청전>과 달리 문장체 소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인물과 화소 면에서도 여러 차이가 있어서 ‘소설이 먼저인가 판소리가 먼저인가’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홍보만보록>의 등장으로 인해 <홍부전>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필요해졌다

후기 사회에 있어서만 진중한 의미를 갖는 작품이 아니라, 21세기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성찰의 지점을 내포한, ‘현재적 가치’를 지닌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풍요의 화신 놀부, 화목의 화신 흥부

한 개인이,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물질적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안정이다. 앞서 언급한 김태형의 입론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 키워드로 삼은 ‘풍요’와 ‘화목’은 구체적으로 풀어 말하면 ‘물질적 풍요’와 ‘관계적 화목’으로서, 이는 각각 ‘물질적 안정’과 ‘정신적 안정’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⁸⁾

<홍부전>의 두 주인공 놀부와 흥부는 바로 이 두 가치를 각각 몸소 대변하는 인물들로, 놀부는 ‘풍요의 화신’이요, 흥부는 ‘화목의 화신’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풍요와 화목이라는 두 가치는 각각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추구했을 때 삶과 사회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화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바, 먼저 풍요의 화신으로서 놀부의 면모가 어떠한지 들여다 보기로 하자.

놀부는 부의 축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존재이다. 그는 장자라는 위치와 자신의 가정경제 기여도를 근거로 부모가 남긴 유산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며 이를 자신의 권리이자 능력으로 내세우는데,⁹⁾ 특히 그의

고 생각된다. 더불어 이러한 <심청전>, <홍부전> 이본 현황을 감안할 때, 그동안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설화→판소리→소설’ 도식 역시 다각도의 재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8)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잘 알려진 명제를 참고할 때, 개인의 정신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교감, 화합, 연대 등의 가치다. 그런 점에서 ‘정신적 안정’과 ‘관계적 화목’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 9) <홍보만보록>의 경우, 놀부와 흥부 형제는 평양 서촌의 가난한 평민 집안 출신으로서 둘 다 부잣집 데릴사위로 장가 들며, 이후 흥부는 생계 곤란에 처한 부모를 봉양하러 처자를 데리고 친가로 돌아오는 반면, 놀부는 그런 부모의 사정을 모르는 체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현전하는 대다수의 <홍부전>들과 달리 놀부가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흥부를 내쫓는다는 화소는 나오지 않는다. <홍보만보록>에서 놀부, 흥부의 부모는 작품 끝까지 살

치부(致富) 능력은 늘부 자신의 말은 물론이고, 서술자의 묘사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A) 홍보야 네 듯거라 스람이라 혼난 거시 밋는 거시 잇시면은 아무 일도 아니된다 너도 나이 장성하야 계집 즈식 잇난 놈이 사람 성의 어려운 줄 족꿈도 모로고서 나 혼나만 바리보고 유의유식 혼난 거동 보기 슬어 못헛것드 부모의 세간스리 아무리 만하여도 장손의 차지 될 디 허물며 이 세간은 나 혼자 작만하니 네게는 부당이라 네 처즈 다리고서 속거철이 써느거라 만일 지체하여서는 사륙지환 날 거시니 어서 급피 나가거라 - 신재효본 <박타령>¹⁰⁾

(B) 이놈의 심스? 모기남무 젓가지요 성정이 불양하여 부모상전 분지전답 저 혼자 차지함이 늘부가 부즈엿드 서울 부즈 갖드면 봉계스 접빈각과 베실 밋천 의복 호스하련만는 시골 부즈라 하년 것시 집뭇세 쓰인 세간이라 근간이 버으러라 부즈라 하것드 이놈 심사난 십이제국 심스를 저 혼자 차지하야씨되 농스난 화하얏 칠연디훈이 너머 마흔 네히가 지니가도 실농 안니하게 버을던니라 웃물 죠흔 디 모을 붓고 집뭇 논외 물가리 뉘뭇 논외 말은 가리 구렁 논외 풍곡하고 진 논외 출베 심우고 평전 논외 만베하고 사리 진 밧 콩을 갈고 살쥔 밧테 면화하고 건 밧테 팻철 갈뉘 울콩 불콩 청디콩 눈 거문 광정이 심동찰적 도팻 췌느러 저목 슈슈 찰췌 들췌 들췌 동부 녹도 머드레 등을 간 골르게 심어두고 팔구월의 추수하야 압뉘들의 노력을 동덩굴러라 쓰아두고 호가스로 지니오며 홍보 갖치 어진 동성 움막 지어 너췌리고 일뉘 일니 안니 췌며 지니가며 죠롱한니 엇지 안니 무거하리 - 하버드대 연경도서관본 <홍부전>¹¹⁾

위 인용문 (A)를 보면 신재효본 <박타령>에서 늘부는 홍보를 꾸짖어 내쫓으려 하면서 그 논리로 “부모의 세간살이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될” 터인데 “하물며 이 세간은 나 혼자 장만하니 네게는 부당이라”고 말한다.

아 있는데, 이러한 설정만 보더라도 이 판본은 <홍부전> 이본군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홍보만보록>에서도 늘부가 물질(돈)을 우선시하고 윤리를 도외시하는 것은 다른 <홍부전>들과 같다.

10) 신재효본 <박타령>(가람본),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2003, 75면(이하 해당 텍스트 인용시 면수만 표기하기로 함).

11)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51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홍부전 전집』 3, 박이정, 2003, 82면(이하 해당 텍스트 인용시 면수만 표기하기로 함).

여기서 그는 부모의 유산을 혼자 물려받는 것을 장손의 권리로 보고 있으며, 그에 더해 세간 또한 자기 혼자 장만한 것이라면서 가산을 독차지하는 것은 그 자신의 공로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때 놀부의 말을 끈이끈대로 믿을 수 있는가 문제삼을 수도 있겠으나, 그의 말을 일단 그대로 존중한다면¹²⁾ 놀부에게 있어 그 치부 능력만은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놀부의 치부 능력은 인용문 (B)의 하버드대 연경도서관본 <홍부전> 속 서술자 발화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주목된다. 여기서 서술자는 시골 부자는 서울 부자와 달리 “근간(勤幹/勤懇)히 벌어야 부자라” 한다는 점을 짚은 뒤, 놀부에 대해 “농사가 화하여 칠년대한이 넘어 마흔 네 해가 지나 가도 실농(失農) 아니하게 벌더니라”고 하면서 그의 농사짓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해놓고 있다. 이로써 보면 부도덕한 성품 및 행실과는 별개로, 놀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근면성실함에 근거한 것이라면 놀부의 치부 행위 자체는 그의 긍정적 면모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놀부의 진짜 문제는 그가 재산을 충분히 모은 후에도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을 부렸다는 데에 있다. 놀부는 홍부네 가족을 쫓아낸 뒤 더욱 대단한 부자가 되었으면서도¹³⁾ 홍부가 부유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그 자초지종 경위를 알아낸다. 그리고는 결국 멸절한 제비 다리를 분

12) 놀부의 논리에 홍부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점, 그리고 놀부에게 쫓겨나기 전후 서사에서 홍부에게 엿보이는 부족한 실리감각, 경제적 무능 등을 고려한다면 일단 놀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 다만 놀부가 홍부를 쫓아내는 화소가 없고, 홍부가 장가 든 뒤 다시 친가로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홍보만보록>에서의 홍부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는 ‘나무를 팔아’ 생계에 종사하는 인물로 나온다. 다음의 구절이 참고된다: “놀부 형대 놀글 프라 연명흐나 능히 이우디 못흐니”, “기처는 방하 품을 풀고 지(홍부-인용자주)는 놀글 뷘여 강촌의 프라 요심흐나 능히 니우디 못흐니” <홍보만보록>, 김동욱 옮김, 앞의 책, 77면, 79면.

13) <홍부전>에서 쫓겨난 홍부가 다시 놀부를 찾아갔을 때, 놀부 집은 한층 더 부유해져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경판본 <홍부전>에서는 “형의 집의 드러가서 전후좌우 버라보니 압노적 뒷노적 명에 노적 담불담불 쓰하스니 홍부 마음 즐거오노 놀부 심스 무거허여”라고 하여 놀부의 부유함을 눈으로 확인한 홍부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신재효본 <박타령>에서는 “형의 문전 당도흐니 그시 성세 더 늘러서 가스 중이 웅중허다”라고 묘사함으로써 홍부를 쫓아낸 뒤 놀부 집 성세(成勢)가 더 늘었음을 더욱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경판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2003, 13면(이하 해당 텍스트 인용시 면수만 표기하기로 함); 신재효본 <박타령>, 79면.

질러서까지 기어이 박씨를 얻어낸다. 그는 박을 하나하나 타는 과정에서 계속 낭패를 보면서도 끝까지 박을 타겠다는 집념을 거두지 않음으로써 결국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고 신체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이렇게 보면 놀부가 그 자신의 미덕으로 여겼던, 그리고 작품 초반부에서 일정하게 긍정되었던 치부 능력이라는 것도 과연 엄밀한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해 볼 만하다. “창업(創業)하기 어렵거니와 수성(守成)하기 더 어렵”다는 <치산가>의 한 구절처럼,¹⁴⁾ 놀부가 진정한 치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는 재산을 일궈나가는 것[創業]과 함께 그러한 일궈낸 재산을 지켜나가는 것[守成]에도 못지 않은 힘을 기울였을 것인데, 놀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유함을 최고 가치로 삼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극도로 인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마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신세에 이르렀다. 이 점에서 ‘풍요의 화신’으로서 놀부의 치부 능력은 치산 능력에까지 미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반쪽짜리 능력이라고 비판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치산이란 무작정 부의 축적만 좇는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에 대한 절제와 타인에 대한 나눔까지도 함께 뒷받침될 때 달성 가능한 가치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놀부와 대척점에 있는, ‘화목의 화신’으로서 흥부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흥부전>에서 흥부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돌보는 데 몰두하는 존재다. 물론 그가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는 데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한다면 이는 작품의 실상과 어긋난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안정 추구는 놀부로부터 쫓겨나서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받았을 때 발현되기 시작한 것이지, 기실 흥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행동은 타인을 돕고 관계를 원만히 하는 일이었다. <흥부전> 이본에 따라서는 작품 서두의 ‘놀부 악행 사설(놀부 심술 사설)’에 이어서 ‘흥부 선행 사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확인되듯이 그는 남의 곤경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심성의 소유자인 것이다.

14) “치산가 흥 곡조를 범연이 듯지 마쇼, 창업흥기 어렵편과 수성흥기 더 어렵네”(〈治産歌〉, 강한영 교주, 『신계효 판소리 사설집(全)』, 민중서관, 1971, 673면. 띄어쓰기는 필자가 새로 함.)

(C) 홍보의 마음씨는 제 형과 달나 부모의게 효도하고 얼운을 존경하며 일이
의 화목하고 친고의게 신이 잇서 굴머서 죽을 사람 먹던 밥 덜어주고 얼어서 병
난 스람 입엇든 옷 버셔 주기 늘근이 질머진 짐 즈청하여 저다주고 장마씨 큰 물
가의 삭 안 밧고 월천하기 남무 집이 부리 나면 세간스리 직켜주고 길의 보물 썸
저씨면 직켜 섯다 입즈 주기 청산의 퍽골 보면 집피 파고 무더주고 슈절과부 보
쓸흐면 썸츠가서 썸어노키 어진 사람 모함하면 디로 나서 발명하고 인잔한 놀
횡악 보면 달여들어 구완하기 길 일은 어린 아희 저의 부모 츠저 주고 주막의 병
든 사람 본가의 기별 전키 게침불살 방장부절 나무 일만 호노라고 한 푼 돈을 못
벼으니 놀보 오족 뭇여 하라 - 신재효본 <박타령>, 74~75면.

(D) 홍부 울며 건너오니 홍부 안희 니다라 두 손목을 덤석 잡고 우지 마오 엇지
하여 울으시오 형님전의 말흐드가 톨 맛고 건너옵는 출문망 출문망 허위허위
오는 슝 땀땀치 날 속인고 엇지하여 이제옵는 홍부는 어진 슝이라 하는 말이
형님이 서울 가고 아니 계시기의 그저 와습닌 - 경관 25장본 <홍부전>, 15면.

위 인용문 (C)에서 홍부는 부모, 어른, 인리(人里) 사람들, 친구와 같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도리를 다할 뿐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들이 처한 갖가지 어려움에도 일일이 발 벗고 나서서 돕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인용문에 나열된 홍부의 선행은 모두 돈 안 되는 일(더 나아가 오히려 돈을 축내기까지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재산 불리기를 최우선으로 삼는 놀부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홍부가 당연히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서술자는 홍부의 선행들을 나열한 끝에 “남의 일만 하노라고 한 푼 돈을 못 벌으니 놀부 오족 미워하라”라는, 놀부의 시각에 입각한 서술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홍부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감싸는 포용력을 보여준다. 인용문 (D)에서 놀부를 다시 찾아갔을 때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몽둥이질마저 당한 채 울며 돌아오면서도, 홍부는 아내에게 “형님이 서울 아니 계시기에 그저 왔습네”라고 말하며 형의 허물을 감춰준다. 또 하버드대 연경도서관본, 신재효본, <연의 각>에서는 귀가한 홍부에게서 매맛고 온 흔적을 발견한 아내에게 홍부가 ‘사실 형님은 이것저것 챙겨주셨으나 돌아오는 중에 도적이 위협해 모두 빼앗기고 이리 된 것’이라는 요지

의 거짓말을 하기도 함을 볼 수 있다.¹⁵⁾

이후에도 홍부의 선행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가난을 한탄하며 스스로를 닦하는 아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 처자식들을 위해 환자 섬을 타러 가며 심지어 매품팔이까지 마다 않고 나선다.¹⁶⁾ 또 그의 선한 마음은 사람을 넘어 미물(微物)에까지도 미처서, 홍부는 없는 살림에도 자기 집에 등지를 튼 제비들을 돌보이주며, 그중 땅에 떨어진 제비 한 마리의 부러진 다리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준다.

<홍부전>의 대단원을 보면, 자신을 그토록 박대했던 놀부가 완전히 패망하자 그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와 놀부 대신 장비에게 용서를 빌거나, 비참한 행색으로 자신을 찾아온 놀부를 극진히 위로하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누어주는 홍부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본들이 있다. 이는 화목을 지향하는 홍부의 가치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그러나 ‘화목의 화신’ 홍부에게도 약점이 있으니, 선행 연구들에서도 지적된대로 경제적 무능 혹은 무기력, 부족한 실리감각이 그것이다. 경판본이나 하버드대 연경도서관본 등에서 발견되는, 홍부가 “물욕에 탐이 없”고 “안빈낙도를 즐겨한다”와 같은 서술, 그리고 그런 홍부가 “부귀를 바랄소냐”와 같은 서술은 언뜻 보면 홍부의 경제적 무능 내지 무기력을 문제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자의 말과는 달리, 홍부와 같은 편에 있는 그의 아내마저 경제적 측면에서 홍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 홍부 안희 호는 말이 익고 여복소 **부절업슨 청년** **맏소** 안지 단표 두린 년

15) 이러한 홍부 모습을 제시할 때 <연의 각>의 서술자는 “홍보가 죽어도 동기간 우익 있는 말을 하겠다”, “홍보에 착한 마음 형의 말은 안이하고”라는 논평을 덧붙인다(세창서관본 활자본 <연의각>,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홍부전 전집』 3, 박이정, 2003, 246~247면(이하 해당 텍스트 인용시 면수만 표기하기로 함).

16) 여기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홍부의 선한 마음에 주목한 것이지만, 홍부가 시도한 매품팔이는 사람 생명을 담보로 한 반인륜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를 옹호하기는 어렵다. 홍부 아내의 홍부가 매품 파는 데 실패하고 돌아오자 오히려 기뻐하는데, 이미 텍스트 속에서 홍부 아내의 반응을 통해 매품팔이의 비인간성이 고발되는 셈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함께 성찰해 볼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17) 이러한 결말과 화목 사회에의 지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치 삼십조스호엿고 빅이숙제 듀린 넘치 청누 소년 우어스니 부절업은 청년 말고
져 즈식들 굶겨 독이그스니 아즈번네집의 가서 쓸이 되는 버가 되는 어더 옴소
 - 경판 25장본 <홍부전>, 13면.

위 인용문 (E)의 홍부 아내 말에서 ‘부질 없는 청렴’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음에 주목해 보자. 홍부의 금슬 좋은 아내도 자식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있어서는 남편의 청렴함이 당장의 생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물질주의의 최첨단에 서있는 놀부에게 동생 홍부가 어떻게 인식될지는 자명하다. 앞서 인용문 (C)를 제시하며 언급한 “남의 일만 하노라고 한 푼 돈을 못 벌으니 놀부 오죽 미워하라”라는 서술은 이를 가장 잘 대변해준다.¹⁸⁾

요컨대 홍부는 때때로 자신에게 미치는 손해와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분명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그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그리고 그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생계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는 감각과 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인물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화목의 화신’으로서의 홍부 역시 그 자체로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립하는 일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자면, ‘물질적 풍요’와 ‘관계적 화목’은 이상적인 삶의 달성에 있어 마치 두 마리의 토끼와 같아서 동시에 다 잡고 싶지만 실제로 다 잡기가 어려운 가치들이다. <홍부전>은 바로 이런 점을 간파하고 풍요와 화목 중 하나의 가치를 비교적 극단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놀부와 홍부 두 인간형¹⁹⁾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도달하고자 하지만 그

18) 신재효 <박타령>에서 이 서술로 마무리되는 홍부 선행 사설 뒤에는 곧바로 놀부가 홍부를 불러 꾸짖으며 내쫓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 때문에 정충권은 홍부 선행 사설이 홍부의 심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실없는 인물 인물로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파악한다. 정충권, 『홍부전 연구』, 월인, 2003, 101면.

19) 여기서 놀부가 시중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고 관계적 화목은 완전히 등한시하는 데 반해, 홍부의 경우 관계적 화목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이되, 극도의 가난을 겪으면서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구 또한 일정하게 보여준다는 점은 짚어둘 부분이다. 매품팔이를 약속하고 돌아오는 길에 홍부가 부르는 ‘돈타령’은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물질적 안정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 부분으로, “若民, 則無恒産, 因無恒心.”(『맹자』 「양혜왕

러기 쉽지 않은 두 가치와 관련지어 개개인을 성찰해 보게 하는 문학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렇다면 이 두 인물이 빚어내는 작품 결말은 어떠한가, 또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아래에서는 놀부가 박을 다 타고 패망한 이후 놀부와 흥부의 행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흥부전>의 결말을 살핍으로써, <흥부전>이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고자 한다.

III. 놀부 패망 후 배제와 포용의 두 가지 결말

서사문학의 서두에서 결말로의 이행은 처음의 균형상태가 상실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균형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그리고 이때 작품의 결말이 그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²⁾ 그렇다면 <흥부전>에서 부의 축적에 눈이 멀어 주변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또 질주하는 탐욕을 멈추지 못해 모든 재산을 잃고 만 놀부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앞서 살펴본 흥부와 놀부의 두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결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풍요’만을 좇았던 놀부가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더라는 데서 끝맺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목’을 지향했던 흥부가 그런 놀부를 구제해 주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다.²³⁾

상)이라는 유명한 언명을 상기하게 한다.

20) 다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두 인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놀부같은 인물은 되기 쉽지만, 흥부같은 인물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김종철, 『흥부와 놀부 박의 화두 - 행복과 욕망, 그리고 선악』, 『선청어문』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61~64면 참조.

21)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93면.

22) 김정희,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81면 참조.

23) 19세기를 살았던 양반 사대부 정현석이 쓴 『교방가요』(1872)의 ‘창가(倡歌)조에 보면 그는 <龜打승(박타령)>에 대해 “兄賢弟頑 此勸友也.”라고 하여, <흥부전>의 주제를 ‘우애’로 파악하였다(정현석 편저, 성무경 역주, 『교방가요』, 보고사, 2002, 224면. 여기서 ‘형제제왕’이라고 한 부분은 형과 아우를 바꿔서 잘못 표기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전하는 어느 <흥부전> 판본에서도 형인 놀부가 어질고 아우인 흥부가 완악하게 그려지는 이본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현석이 파악한 ‘우애’라는 주제가 그가 보고들은 <흥부전>의 결말이 어땠는가를 바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우애의 중요성은 놀부가 완전히 몰락하는 데서 끝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상이한 결말은 향유층의 가치 지향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진 것일테고, 또 각각이 갖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그르다를 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²⁴⁾ <홍부전>이 오늘날 사회상과 관련지어 줄 수 있는 시사점과 관련해 이들 결말이 갖는 의미를 따져보는 것은 하나의 유익한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들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우선 하버드대학교 연경도서관본, 경판본은 그 결말이 놀부의 패망 후 그를 포함해 일가족이 비참한 모습으로 끝맺는 쪽으로 되어 있다.

(F) 놀보 제집 일른 말리 만중녹도 실씩웁고 빙고과 죽거였너 박속이나 끌러 먹즈 하고 하고만한 박속 중의 초란니 느온 박을 쓸물 격의 놀보 팔리 맞보던니 어만임 어만임 이 국을 맛설 분니 나도 절마 당동 거 무순 말인야 놀보 아너 맞보던니 이기 아번임 이기 아버임 이 국을 맛설 분니 나도 절마 당동 놀보 역시 맞보던니 맞시사 조타만는 나도 절마 당동 못 당동이 덤병일제 동니 골싱원이 철빈니 지니던니 연일불식 슈리다가 다 찌러진 말관 씨고 우연니 도라오며 느깃한 목을 니여 호령하며 일른 말리 아모리 상것덜인들 양반의 이웃의서 그 무순 쇼리인야 놀보 일른 말리 신임 니 국 쯤 맛설 보오 당동 쇼리 나오 이놈 양반도 당동 쇼리 날가 한 박을 썬 들고 훌썩 마시던니 당동 쇼리 북받친니 풍월 노리 읊퍼 추가박국을 일포식한니 당동지성이 구즈쥬오 당동당동지당동한니 우의 나도 집당동 일리할체 천도의 도술노 놀보 세간 탕진한니 일런 일노 불지라도 의을 부더 심각하쇼 그 뒤야 뉘 알니 언성 불출 그만 저만 -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51장본 <홍부전>, 117~118면.

(G) 놀뷔 흘일업서 종을 드리고 박을 켜고 보니 아모것도 업고 박 속이 막업 즉흔지라 국을 쓰러 마슬 보고 흐는 말이 이런 국맛슨 본 벼 처음으로다 흐며 당

나는 것으로도 구현할 수 있고(우애를 모르는 자는 놀부처럼 패망한다), 홍부가 놀부를 구제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도 구현할 수 있기(진정한 우애는 홍부처럼 잘못된 형제를 감싸주는 것이다) 때문이다.

24) 엄밀히 말해 이러한 판단은 독자 개인의 몫으로 돌려야 할 뿐임을 다음 언술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 “서사는 영원히 우리들이 채워야 할 틈으로 가득한 채 남아 있고, 아무리 서사가 설득력 있는 결말을 제시해도 결국 종결은 우리의 결심에 의해,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인증해야 할 대상으로 남겨져 있다.” H. 포터 애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학지성사, 2010, 403면.

동당동하다가 미쳐서 또 집 우회 올나가보니 밤 혼 통이 이스되 빗치 누르고 불
 빛 갓튼지라 (…중략…) 심분 칠필분을 터니 홀연 박 속으로서 광풍이 더작하며
 쏜들기 노오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는지라 윈집이 혼이 썩서 더문 맞기로 나와
 문틈으로 엿보니 되쑹 물지쑹 즈쑹 마른쑹 여러가지 쑹이 합하여 노와 짐우가지
 찌히는지라 놀뿔 어이업서 가슴을 치며 흐는 말이 이런 일도 또 잇는가 이리홀
 들 아라시면 동냥홀 박으지는 가지고 나오더면 조홀 변한다 호고 뻔뻔호 놀이
 처즈를 잇글고 흥부롤 츠즈가니라 - 경관 25장본 <흥부전>, 39면.

위 인용문 (F)는 하버드대 연경도서관본의 결말로, 놀부가 박속에서 나
 온 온갖 무리들(노인 양반들, 걸인들, 사당패, 초라니패, 화주승, 상여꾼, 풍
 각장이패)에게 돈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나온 장비에게까지 돈을 내어
 주며 전 재산을 완전히 탕진한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놀부 아내는 결국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초라니패가 나왔던 박속을 훑이는데, 이를 맞본 놀부
 의 딸, 아내, 놀부 그리고 이웃집 양반 골생원까지 모두 ‘당동’ 소리를 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이어지며 이에 대해 “천도의 도술로 놀보 세간 탕진
 하니 이런 일로 불지라도 의를 부디 생각하소”라는 서술자의 논평으로 작
 품이 마무리된다. 즉 이 이본은 못된 일을 일삼고 재물욕만을 쫓았던 놀부
 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간을 모두 탕진하는 것으로 끝맺음으로써
 놀부에게 어떠한 구제나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은 인용문 (G)에 제시한 경관본 결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열한 번째 박에서 장비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후에도 놀부가 동
 산에 올라가 또 한 개 박을 가져와 타서 박속을 훑어먹은 뒤 “당동당동” 소
 리를 내며, 이어서 또 한 개 박에서 나온 똥줄기 세례를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놀부가 신세 한탄을 하며 흥부 집을 찾아가는
 것으로 끝맺는다. 경관본의 놀부 역시 완전히 패망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는
 데, 그는 어떠한 뉘우침도 보이지 않고 “뻔뻔”하게 “처자를 이끌고 흥부를
 찾아가”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흥부전>에서 추구한 결
 말의 한 계통은 무도한 물질주의자 놀부를 징치하고, 그에게 어떠한 도움
 제공이나 개과천선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같은 인간형
 을 일정하게 ‘배제’해 버리는 방향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²⁵⁾

반면에, 신재효본과 <연의 각>의 경우는 흥부가 놀부를 구제해 주고 또

놀부는 개과천선하는 모습으로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

(H) 중군이 분부하되 네 마리 그러하니 알기 흰 수가 있다 남원이나 고금도나 우리 중형 계신 고디 너가 가서 모셔 잇서 네 쇼문을 탐지하여 기과를 하여씨면 짐물을 다시 주어 부즈 되게 할 거시오 그러치 아니하면 바로 와 떡일테니 군스 호쾌호제 이제 곳 써나것다 놀보가 감화하여 양식 잇난 디로 밥을 짓고 쇼와 다 키 마니 좁어 군스를 맥이면서 조흔 술을 연에 부어 중군 전의 올이오니 제 계집 이 말여 아거 그만 합쇼 그 중군임 술취하면 아모 췌 업난 놈도 편타를 호신답네 놀보가 우셔 즈니 엇지 알아 그 중군임 중훈 의기 의석 엄안하션나니 중군 회군 호신 후의 가산을 도라보니 일피도지하여쑤나 방성통곡하고 흥보집 츠져가니 흥보가 더경하야 극진이 위로하고 제 세간 반분하야 형우제공 지너난 양 님 아니 칭찬하리 도원의 나문 의기 천고의 유전하야 일어호 호우불이 감동하게 하시오니 엄안입나하는 비이지풍 갖튼가 - 신재효본 <박타령>, 133~134면.

(I) 이러듯 애걸호제 저 장사의 일은 말이 심술잇는 디는 묘흔 약이 잇는이라 호고 쏘물 호그릇을 퍼먹이니 놀보가 구갈는 놈 님수 마시듯 호고 나서 제 아오 츠져가서 북 심으다가 피가망신호 말을 호고 디성통곡하니 흥보에 착한 마음 집 짓고 세간 주어 근처에 살니는디 놀보 기과천선하야 우애가 더단하니 그 된 일은 자연 짐작하리로다 - 세창서관본 활자본 <연의각>, 301면.

각각 신재효본과 <연의 각>에서 뽑은 결말 부분이다. 인용문 (H)에는 놀부가 장비의 말에 “감화”되었다는 말이 들어 있고, 더불어 장비가 회군한 후 그가 흥부 집을 찾아가자 “흥보가 대경(大驚)하여 극진히 위로하고 제 세간 반분(半分)하여 형우제공 지내는 양 님 아니 칭찬하리”라는 서술이 들어 있다. 또 (I)에서는 흥부가 “착한 마음 집 짓고 세간 주어 (놀부를) 근처에 살”게 했다는 서술과 함께 놀부가 “개과천선하여 우애가 대단” 했다는 서술을 통해 흥부의 놀부 구제와 함께 놀부의 개과천선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다. 이 <연의 각>의 경우, 놀부가 일곱 번째 박을 탔을 때 일가족이 박속

25) 다만 경판본의 경우, “흥부를 찾아가니라”라는 서술을 통해 자신을 찾아온 흥부가 놀부를 어떻게 대할지 독자가 상상하게끔 하는 ‘열린 결말’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크게 보면 경판본은 연경본과 궤를 같이하지만, 상세히 건주어 본다면 상대적으로 놀부에 대한 포용 가능성을 열어둔 이본이라고 평할 수 있겠다.

을 끊어먹고 ‘당동당동’ 소리를 내고 이것이 이웃집 양반 골생원에게까지 전염되는 것은 하버드대 연경도서관본의 화소와 같다. 하지만 이후 마지막 여덟 번째 박에서 장비가 나와 그를 꾸짖고 거기에 놀부가 감화되면서 놀부는 구제되고 회과하는 인물로 거듭남으로써 완전히 구별된다.²⁶⁾ 이로 보건대, <홍부전>이 추구한 또 다른 한 계통의 결말은 놀부 같은 인간형을 ‘포용’하는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함께 짚어볼 부분은 선행 연구에서 필사연도를 1833년으로 추정하였고 다수의 판소리체 <홍부전>들과 달리 문장체 소설로서의 성격을 지닌 <홍보만보록>의 경우, 신재효본과 <연의 각>에서처럼 놀부에 대한 포용의 결말을 보인다는 점이다.

놀뻐 일호 디기(知己)업고 횡낭 훈 간이 업스니 싱계 망단(望斷)혀여 빌어먹으려 나가니 홍뻐 이 소문을 듯고 불상이 녀여 다려다가 격간의 너코 의식을 훈가 디로 훈니 놀보 부체 고마와 흐더라.²⁷⁾

만약 <홍보만보록>이 이른 시기 <홍부전>의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 판본이라고 한다면, <홍부전>에서 악인 놀부의 행방을 처리한 본래적 상상력은 의외로 그를 포용하면서 홍부 놀부 두 형제가 화합하여 사는 것을 지향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부전>의 결말은 향유되는 과정에서 놀부 징치 후 그를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분기되었는데, 이 글에서 키워드로 삼은 풍요와 화목이라는 가치와 관련해서 의미를 찾는다면 놀부를 배제하는 결말보다는 그를 포용하는 결말이 보다 ‘화목 사회’로의 지향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질적 풍요만을 좇았던 놀부에게 구제나 개과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권선징악’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말 처리의 경우, 빈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놀부같은 인간형이 많아진 현실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

26) 세창서관본 활자본 <연의각>, 299~301면.

27) <홍보만보록>, 김동욱 옮김, 앞의 책, 103면. 이 이후에도 서술이 좀 더 이어지는데, 요점은 후일 홍부가 무반 급제를 하고, 그 자손들 또한 문무과 벼슬을 하며 잘 살았으며, 홍부는 덕수 장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은 그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공동체는 결국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깃들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놀부에게 뉘우침과 변화의 기회를 주고 홍부가 놀부를 구제해 주는 결말에서는 그와 관련된 고민이 얼마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핵심은 바로 놀부 그 이상의 부자가 된 홍부가 형과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놀부 포용의 결말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고 또 사회 화목을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놀부를 구제하는 홍부의 행보를 통해 넉넉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의가 있다.

IV. 한국 사회의 지향점과 관련해 갖는 의미

앞서 II장에서 <홍부전>의 놀부는 그 치부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그가 축적한 부를 지켜내는 능력은 부재했다는 점을 들어 그의 치산 능력은 반쪽짜리임을 짚었다. 또 홍부는 더불어 사는 훌륭한 심성의 소유자이지만 자기보호와 자립의 측면에서는 취약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역시 완벽한 인간형은 아님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 둘은 ‘풍요’와 ‘화목’이라는 두 가치를 각각 극단으로 체현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이 장의 요지였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홍부전>에서 놀부 패망 후 그의 행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해 크게 놀부 배제와 놀부 포용의 결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전자는 놀부 같은 인간형에게 어떠한 구제나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구제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때 배제보다는 포용의 결말이 빈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좀 더 ‘화목 사회’로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짚는 것이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한 바였다.

28) 이러한 놀부 포용의 결말이 ‘권선징악’의 의미를 약화시키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본다. 놀부는 이미 그가 가장 중시했던 가치인 물질(재산)을 몽땅 잃어버림으로써, 그리고 추가 응징이자 원초적인 징치에 해당하는 육체적 징벌까지 당함으로써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홍부전>의 두 인물 형상과 결말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서론에서 언급한 <홍부전>의 현재적 가치와 관련해 이러한 물음을 다시 소환해 보면서, 여기서는 놀부를 구제하는 홍부와 개과천선하는 놀부, 그리고 이로 인해 완성된 포용과 화합의 결말 쪽에 주목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 사회의 경제성장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적 수준이 더 이상 삶의 질이나 행복과 비례하지 않거나 혹은 반비례하는 현상을 ‘풍요의 역설(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한다.²⁹⁾ 이에 비추어 보자면 <홍부전>에서 홍부의 놀부 포용은 그러한 화목 사회를 위한 하나의 발걸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홍부가 제비의 박씨를 매개로 얻게 된 부유함은 그동안 단지 홍부의 선행의 결과로 얻어진 보상으로 이해되었고, 또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환상적인 장치로만 주목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잘 따져 보면, 홍부가 얻게 된 막대한 부유함³⁰⁾은 그의 선한 마음과 행실에 대한 보상이기는 해도 그러한 홍부의 역량 이상의 것이다. 그리하여 홍부가 부자가 된 후 처음 자신을 찾아온 놀부를 후히 대접하고 화초장 또는 돈계를 주어 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놀부가 패망했을 때 그를 구제해 주는 것은 홍부 자신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자신이 가진 것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성찰 없이 무작정 더 많은 것만을 탐하는 놀부 같은 인간상과 홍부가 구현하는 인간상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두루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능력주의’ 답론³¹⁾과 겹쳐서도 성찰해 볼 점이 있다고 본다.³²⁾

29) 김태형, 앞의 책, 11면. “돈은 차이를 가져오지만 그것은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었을 때뿐이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돈이 더 많아져도 행복 수준은 거의 혹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유발 하라리, 앞의 책, 592면의 ‘웁긴이 후기’)라는 언급도 함께 참조해 볼 만하다.

30) 이본마다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홍부가 타는 박은 대개 3~4개 정도이다. 여기서 홍부는 쌀계, 돈계와 함께 의식주 관련 온갖 보물들을 얻고 심지어 자신을 양귀비라고 칭하는 소설까지 얻기도 한다.

31)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근래에 능력주의 답론을 테마로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와이즈베리, 2020). 이 책에서 샌델은 ‘나의 재능과 사회로부터 받은 명성 및 대가가 온전히 내 몫인가 아니면 행운의 산물인가와 같은 문제에 천착하고 있으며, 자신이 얻은 사회적 명성과 대가가 행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고

물론, 이때 홍부의 놀부 포용과 달리 놀부의 뉘우침에 있어서는 그 진실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놀부가 장비에게 감화되었다거나 개과천선했다는 사실은 텍스트 속에서 간단한 서술로 처리된 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보았듯, 물질적 풍요는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욕구이자 욕망 중의 하나라는 점, 다만 거기에 과도하게 눈이 멀었을 때 놀부와 같은 패착에 빠지게 된다는 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바다. 그런 점에서 놀부에게 회과와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결말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깊게 와닿는 바가 있는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4화 ‘삼 형제의 난’ 또한 상기해보게 된다. 이 에피소드는 실제 한 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맡았던 실화 사건³²⁾을 바탕으로 각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극중 우영우가 절친한 친구 동그라미의 아빠(동동삼)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로펌 동료들과 함께 변론에 나서서 이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가 이 에피소드를 시청하면서 느낀 바는 동동삼이 <홍부전>에서 자신을 박대한 형 놀부를 포용하며 그에게 재산을 절반 나눠주는 홍부³⁴⁾에 꼭 비견해 볼 만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마음씨가 한없이 착하기만 한 동동삼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몫으로 남겨줬던 땅이 후일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공동선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 32) 경제학자 이강국은 한 기고문에서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와 평등에 대한 지지가 2010년대 이후 크게 약화됐다. 이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한국인이 가난이 사회구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로 생각하며 자신이 실제보다 더 상위계층이라 생각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불공정이나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가치관 조사의 다른 질문에 따르면 노력하면 성공하는 대신 운이나 연줄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 왔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결과의 평등 대신 노력에 대한 보상의 차이가 더 벌어져야 한다고 대답한 이들이 많아진 이유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해서 격차를 지지하고, 소득의 평등과 그를 위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강국, 『사회적 연대가 약해져 간다』, 『주간경향』 1512호, 2023.1.30, 63면.
- 33) 조우성,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삶과 태도에 관하여』, 서삼득, 2022, 111 ~ 123면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 34) 홍부가 놀부에게 자기 재산을 절반 나누어주는 장면을 담고 있는 대표적 이본은 신재효본이다.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형들(동동일, 동동이)과 그 보상금을 나누려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보상금을 둘이서 독차지하려 한 형들의 계략에 깜빡 속아 독소조항이 담긴 각서에 서명을 하게 되고, 결국 보상금 은커녕 되려 빚까지 떠안는 위기에 처한다. 다행히 우영우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힘입어 승소하게 되는데, 에피소드 끝무렵에 동동삼은 물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궁지에 몰았던 두 형을 용서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그치만 나는 형들하고 다르니까 원래 내 몫이 아닌 돈은 욕심 안 낼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고 세금 제하고 남은 돈. 장남, 차남, 막내 똑같이 삼등분 어머세요.”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4화 ‘삼 형제의 난’, ENA, 2022.7.7. 중에서

여기서 “나는 형들하고 다르니까 원래 내 몫이 아닌 돈은 욕심 안 낼 겁니다”라는 말은 동동삼이 부모님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에서 나온 보상금의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것은 그러한 막대한 돈이 온전한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보상금을 똑같이 삼등분해 갖자는 동동삼의 발언에, 두 형들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며 전일의 잘못을 사과한다.

이 에피소드가 공교롭게도 실화에 바탕하여 각색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홍부전>에서 패망한 놀부를 포용하는 홍부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놀부와 같은 이들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홍부전>의 결말이 단지 이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님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재효본, <연의 각>은 물론이고 현전 <홍보가> 창본들³⁵⁾까지 포함시켜 생각해 볼 때, <홍부전>의 주된 결말 경향은 홍부가 놀부를 포용하고 놀부는 회개하는 것으로서, 이는 바로 한국인의 본원적인 가치 지향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현전하는 <홍부전> 가운데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새롭게 소개된 <홍보만보록>에서 홍부와 놀부가 화합하는 결말로 끝맺음하고 있음 또한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35) 심정순, 정광수, 박동진, 이천유, 김연수, 김소희, 박봉술 창본 등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97에 실려 있는 모든 창본들이 이러한 포용적 결말을 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고전소설의 결말구조로 많이 언급되는 ‘권선징악’에 있어서 권선 이 본(本)이고 징악은 말(末)로서 징악은 결국 권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지적,³⁶⁾ 그리고 유교가 본디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았던³⁷⁾ 관점을 따른다면, <홍부전>의 포용적 결말은 동양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 사유를 잘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조선조 향약에서의 환난상휼(患難相恤), 동학에서의 유무상자(有無相資) 정신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화목 사회에의 지향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오랜 꿈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풍요와 화목을 키워드로 삼아 <홍부전>에서 놀부와 홍부의 인물 형상, 그리고 놀부의 패망 이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결말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인물 형상과 결말 구성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향점과 관련해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논하였다. 이는 <홍부전>이 비단 작품이 창작된 조선 후기 사회에서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를 성찰하는 데에도 가치를 지닌 고전문학 텍스트임을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제 앞선 논의를 정리한 다음, 함께 생각해 볼 사항을 한 가지 덧붙이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물질적 풍요’와 ‘관계적 화목’은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두 축의 가치다. 그런데 이 둘은 동시에 달성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 살펴본바, <홍부전>은 한 개인의 삶에서 풍요의 달성에만 골몰하여 화목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사례로 놀부를, 화목에 몰두하다가 풍요의 가치에는 다소 소홀했던 사례로 홍부를 제시하는 텍스트다. 또한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있어서 <홍부전>은 놀부와 같은 인간형을 배제하는 결말과 포용하는 결말, 이렇게 크게 두 계통으로 분기되는 양상을 보

36) 강재철, 「고소설의 징악 양상과 의미」, 『동양학』 3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3, 50면.

37) “人皆有不忍人之心.” 『맹자』 『공손추 상』.

이는데, 이중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화목한 사회로의 지향을 내포한 것은 포용의 결말 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홍부전>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우선 일정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뒤에 사회가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화목’의 가치라는 점을 짚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은 흥부가 놀부를 구제하고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한 ‘포용’의 결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울림을 줄 수 있음에 주목했다. 제비의 보은표 박씨로 부자가 된 흥부가 그토록 자신을 박대한 놀부에게 화조장이나 돈케를 내어주며 살뜰히 대하고, 또 마지막에 완전히 패망한 놀부를 구제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얻은 막대한 부를 오로지 자기 능력(역량)의 결과로만 여기지 않았음을 잘 알려준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능력주의’ 담론과 관련하여 성찰할 부분을 제공한다.

또 부의 축적에만 골몰하여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놀부에게 개과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중시되는 오늘날, 우리 누구든 범할 수 있는 패착을 경고하면서도 개인이 그런 패착을 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하는 기회를 선사하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더 나아가 놀부에 대한 포용과 그의 개과천선은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과 불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요즘, 화목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시사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 함께 언급했던대로, 근래에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 속의 현대판 <홍부전> 에피소드와 그 바탕이 된 실화 속 주인공, 그리고 정약은 말(末)이고 권선이 본(本)이라 보며 인간 본성의 선함을 믿었던 전통적 사유 등을 <홍부전>과 겹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인은 본디 삶과 사회에 있어서 물질적 풍요 못지 않게 관계적 화목에 방점을 두고 있었음도 생각해 보게 된다.

다만 이러한 화목 사회의 지향과 관련하여 <홍부전>의 포용적 결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부분도 남아 있다고 본다. 놀부를 구제하는 흥부 그리고 개과천선하는 놀부의 모습으로 인해 가려지는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예컨대, 흥부의 놀부 포용은 당대 제도상 모순으로 빚어진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갈등을 단지 ‘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라는 개인 차원에서의 시혜 문제로 환원시켜버

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볼 수 있다.³⁸⁾ 그리하여 보다 거시적인 차원, 즉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늘부와 홍부 사이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발전시키고,³⁹⁾ 그에 기반한 결말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 보는 것 역시 21세기 오늘날 <홍부전> 다시 읽기에 나서는 우리의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오늘날의 사회에 비추어 이러한 또 다른 성찰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 역시 <홍부전>이 지닌 현재적 가치 중 하나일 것이다.

38) 이 점은 이 글에서 논의한 늘부 배제의 결말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늘부의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결말은 늘부같은 사람이 사회가 낳은 인간형일 수 있다는 점을 은폐하고 모두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악 심성 계발에는 사회제도의 관여 또한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39) 여기에 중요한 참조가 되는 선학의 연구로 임형택, 「홍부전의 역사적 현실성에 관한 연구」, 『문학비평』 4호, 1969(인권환 편저, 앞의 책, 316~354면에 「홍부전의 역사적 현실성」으로 재수록)이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全)』, 민중서관, 1971.
김동욱 옮김, 『홍보만보록: 최초의 홍부전』, 문학동네, 2020.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97.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2003.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홍부전 전집』 3, 박이정, 2003.
정현식 편저, 성무경 역주, 『교방가요』, 보고서, 2002.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4화 ‘삼 형제의 난’, ENA, 2022.7.7.

2. 단행본

- 김정희,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김태형, 『풍요증독사회』, 한겨레출판, 2020.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정충권, 『홍부전 연구』, 월인, 2003.
조우성,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삶과 태도에 관하여』, 서삼독, 2022.
H. 포터 애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와이즈베리, 2020.
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3. 논문

- 강재철, 『고소설의 정악 양상과 의미』, 『동양학』 3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3, 49~61면.
김동욱·정병설, 『<홍부전>의 새 이본 <홍보만보록> 연구』, 『국어국문학』 179, 국어국문학회, 2017, 89~113면.
김동욱·정병설, 『<홍보만보록>을 통해 본 <홍부전>의 새 주제』,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253~281면.
김종철, 『홍부와 놀부 박의 화두 - 행복과 욕망, 그리고 선악』, 『선정어문』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45~67면.
서대석, 『홍부전의 민담적 고찰』, 『국어국문학』 67, 국어국문학회, 1975(인권환 편저, 『홍부전 연구』, 집문당, 1991, 49~73면에 재수록).

- 윤정안, 「고전소설을 활용한 감성교육 - 다양한 ‘사랑’이라는 감정의 간접 경험», 『한국고전연구』 5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91~118면.
- 이문규, 「홍부전의 문학적 특질에 관한 고찰」, 『선청어문』 11·12(합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1(인권환 편저, 『홍부전 연구』, 집문당, 1991, 439~459면에 재수록).
- 이상일, 「놀부 징벌의 양상과 그 의미 -권선징악 주제 교육의 측면에서-」, 『선청어문』 5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22, 197~220면.
- 이상택, 「홍부 놀부의 인물평가」,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540~549면.
- 임형택, 「홍부전의 역사적 현실성에 관한 연구」, 『문화비평』 4호, 1969(인권환 편저, 『홍부전 연구』, 집문당, 1991, 316~354면에 「홍부전의 역사적 현실성」으로 재수록).
- 조동일, 「홍부전의 양면성」, 『계명논총』 5, 계명대학교출판부, 1969(인권환 편저, 『홍부전 연구』, 집문당, 1991, 253~315면에 재수록).
-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5~82면.

4. 기사/칼럼

- 이강국, 「사회적 연대가 약해져 간다」, 『주간경향』 1512호, 2023.1.30.
-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한국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 1위 꼽아」, 『경향신문』, 2021.11.22.
- 「한국인만 ‘물질적 풍요’ 중시? 조사 보고서 확인해보니...」, 『한국일보』, 2021.11.22.

The Contemporary Value of *Heungbujeon* from the Perspective of Material Well-being and Relational Harmony

Lee, Hae-jin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zation of the two main characters, Heungbu and Nolbu, and the ending of *Heungbujeon*, using the keywords of material well-being and relational harmony. It seeks to discover the contemporary value of *Heungbujeon* by discussing its possible meaning as it relates to the orientations of today's Korean society.

Heungbujeon presents Nolbu as an example of an individual who is preoccupied with the achievement of material well-being while neglecting the value of relational harmony. Heungbu exemplifies an individual who is preoccupied with relational harmony and somewhat neglects the value of material well-being. In a society where individuals live together, *Heungbujeon* bifurcates in two directions: an ending that excludes human characters like Nolbu and an ending that embraces them. It is the ending of the latter that resolves the conflict between members of society and implies an orientation towards a more harmonious society.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is ending embraces a new resonance in today's Korean society. The ending, in which the wealthy Heungbu rescues Nolbu, and the defeated Nolbu is given a chance to redeem himself, is highly suggestive of the conditions for restoring a harmonious society today, when the discourse of meritocracy spreads widely and social conflict and discord are intensifying day by day. When we consider an episode of the modern-day version of *Heungbujeon* in a recent popular drama, which is based on a true story, and the traditional thought for believing in the goodness of human nature, it suggests that Korean originally valued relational harmony as much as material well-being.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confirms that *Heungbujeon* is a text that can help us reflect not only on the late Joseon Dynasty, but also on Korean

society today, and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the contemporary value of Korean classic literature.

Keywords : *Heungbujeon*, Characterization, Ending, Material Well-being, Relational Harmony, Materialism, Meritocracy, Korean Classic Literature, Contemporary Value

접수일자: 2023. 3. 31.

심사기간: 2023. 4. 1.~2023. 5. 10.

게재결정: 2023. 5. 10.

